

세계정당당파의 통합적인 캠페인으로 당선되리라.

**임핑 나이나스터 컨트리 클럽**

- 광주·동광명IC 구간 광복 동행 캠페인
- (당장 후원회) IC 접수후 100% 개시
- 무천시 9월 이후 광복요청정신세 실시
- 예약: www.npdynashy.co.kr 0801 320-7700



박주영

# 한국축구 “첫 승전고 울러라”

오늘 밤 8시 45분 카메룬과 D조 첫 경기  
박주영·이근호 ‘투톱’ ... 첫 메달 사냥 시동



축구

마침내 결전의 날이 왔다. 박성화 감독이 이끄는 축구대표팀이 7일 밤 8시 45분(한국시간) 중국 친황다오 올림픽스포츠센터 스타디움에서 아프리카 강호 카메룬과 2008 베이징올림픽 조별리그 D조 첫 경기를 벌인다. 2004년 아테네대회 8강을 넘어 남자축구 사상 첫 올림픽 메달을 목표로 한 박성화호의 앞길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중대한 일전이다. 특히 축구 뿐 아니라 올림픽에 참가하는 한국 선수단이 치르는 첫 번째 경기라는 점에서 의미는 더 크다. 카메룬은 2000년 시드니올림픽에서 우승한 결코 만만찮은 상대다. 올림픽대표팀 간 맞대결은 이번이 처음이다. ‘태극호’의 개막 축포는 박주영(서울·이근호(대구)에게 기대를 걸 날한다.



박 감독은 4-4-2 포메이션에서 박주영과 이근호를 최전방 투톱에 세워 상대 골문을 공략할 예정이다. 오랫동안 골 맛을 보지 못하고 있던 경기 운영이나 움직임 등이 좋은 박주영을 최전 스톱라이커로 기용, ‘해결사’보다는 ‘도우미’ 역할을 맡겨 득점 부담을 덜어줄 생각을 갖고 있다. 하지만 따로 프리킥 특별훈련을 시키는 등

박주영의 한 방에 대한 믿음은 버리지 않고 있다. 이근호는 그 동안 소속팀은 물론 대표팀을 오가며 꾸준한 활약을 해 왔다. 베이징 올림픽대표팀 출범 이후 16경기를 뛰며 최다골인 5골을 터뜨렸을 뿐 아니라 폭넓은 움직임으로 상대 수비를 괴롭히는 등 공격 지원 중 가장 좋은 몸상태와 감각을 보여 왔다. 체격조건이 좋고 몸싸움에 능한 신영록(수원)은 조커로 활용될 전망이다. 중원에서 경기를 조율할 수비형 미드필더는 김정우(성남)-기성용(서울)이 짝을 이루고, 좌우 미드필더로는 백지훈(수원)과 이청용(서울)이 나선다. 지난달 27일 코트디부아르와 평가전(2-1 승)에서 오른쪽 갈비뼈 사이 연골을 다친 왼쪽 미드필더 김승용(광주)은 몸상태가 정상 수준으로 회복됐지만 남은 일



이근호

정도 고려해 무리하게 출전시키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포백 수비라인은 왼쪽부터 김동진(제니트)-김진규(서울)-강민수-신광훈(이상 전북)으로 구성한다. 골문은 정성룡(성남)이 지킨다. /연합뉴스

## ■ 카메룬은 어떤 팀? 2000 시드니올림픽 금

카메룬이 올림픽 본선 무대를 밟는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첫 출전한 1984년 로스앤젤레스 대회에서 1승2패로 조 3위에 그쳤던 카메룬은 시드니에서 어느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기적을 이뤘다. ‘카메룬축구의 영웅’ 파드리크 음보마와 ‘흑표범’ 사뮈엘 에토오를 앞세워 조 2위로 조별리그를 통과한 뒤 브라질, 칠레, 스페인을 차례로 꺾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유럽이 독식하다시피한 올림픽에서 1996년 애틀랜타대회 나이지리아에 이어 카메룬이 다시 우승을 차지하며 아프리카 축구의 잠재력은 재조명됐다. 카메룬은 A대표팀 전적을 바탕으로 산출하는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에서 13위로 한국(53위)보다 40계단이나 높다. 아프리카에서는 최강이다. 한국은 카메룬과 역대 A대표팀 간 맞대결에서는 2승2무를 거뒀다. 올림픽대표팀 간 격돌은 이번이 처음이다. 카메룬은 베이징올림픽 최종예선에서 5경기를 치러 13득점 5실점을 하며 3승2무의 성적으로 모로코를 제치고 C조 1로 본선 티켓을 거머쥐었다.



베이징 올림픽 개막을 이틀 앞둔 6일 핸드볼 주경기장에서 열린 한국 여자대표팀 미니 연습경기에서 오성목(가운데)이 밀착 수비를 뚫고 슈트를 날리고 있다.

/연합뉴스

## 주경기장 인근에서 “티베트 독립” 시위

서양인들이 6일 베이징올림픽 주경기장인 국가체육장 인근 지역에서 티베트 독립을 요구하는 기습 시위를 벌였다. 베이징올림픽 경기장 인근 지역에서 시위가 벌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중국 신화통신은 이날 오전 5시 47분(현지시간) 중국 공안인 영어로 ‘티베트 자유’라고 적힌 플래카드를 내건 외국인 4명을 연행했다고 보도했다. 공안에 따르면 외국인 4명이 국가체육장 인근 베이징(北辰)교에 접근하더니 남자 2명이 플래카드를 걸기 위해 전신주를 타고 올라갔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뉴욕에 본부를 둔 ‘자유 티베트’를 위한 학생들은 이번이 시위를 벌인 사람들은 미국인 2명과 영국인 2명이며 이중 여자가 1명이라고 밝혔다. 공안들은 현장으로 긴급 출동해 12분 만에 이들 외국인 4명을 모두 검거했다. 이번에 붙잡힌 외국인 4명은 모두 관공비자로 중국에 입국했다.

내체육관에서 실전과 똑같은 포뮬 훈련을 마치고 올림픽 준비를 종료.

## ‘우생선’ 악재를 역점으로

○~2008 베이징올림픽에서 ‘금빛 우생선’을 꿈꾸는 여자핸드볼 대표팀에 악재가 계속. 5일 중국 베이징에 입성해 6일 오전 처음 현지 적응 훈련을 하며 몸을 풀 여자 대표팀에서는 1996 애틀랜타 대회부터 꾸준히 주전 피로로 뛰어 온 허순영(덴마크 오르후스)은 출국 전날 남자 고고 상비군과 연습경기에서 코가 부러지는 부상. 올림픽 개막을 한 달도 남지 않고 백상서 코치가 부진상을 당하더니 임영철 감독의 아버지도 세상을 뜨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지만 선수단은 일제강점기 어려운 일들이 터져 악재를 했다며 마음을 다잡으려는 모습.

## 김치·고추장 등 대규모 조달

○~역대대표팀이 2008 베이징올림픽에서 메달을 따기 위해 다양한 프로젝트를 중국 현지에서 본격 가동 중. 지난 1일부터 네 차례로 나뉘어 베이징에 도착한 대표팀은 우선 김치와 햇반은 물론 전복죽, 장아찌, 고추장, 멸치볶음 등 15박스 분량의 한국음식을 대규모로 조달.

# 만리장성 넘어야 ‘톱10’

여자양궁·탁구·배드민턴 한-중 대결 불가피

2008 베이징올림픽에 참가한 한국 선수단이 9일부터 메달 레이스를 시작하는 가운데 개최국 중국과의 경쟁이 2회 연속 세계 10위 내 진입에 최대 과제로 떠올랐다. 한국은 메달 박스인 양궁과 태권도 등에서 금메달 10개 내외를 수확해 종합 9위(금 12개, 은 9개, 동메달 12개)를 했던 2004년 아테네 대회에 이어 세계 톱10을 지키겠다는 목표다. 공교롭게도 중국과 우승을 다투 종목이 적지 않은 한국은 중국 국적 여부가 세계 10강 수성에 결정적이다. 금메달 40개 안팎을 수확해 미국을 제치고 첫 종합 1위를 노리고 있는 중국은 한국에 달미를 잡힌다면 종합우승 기대는 물거품이 될 수도 있다. ‘여자 헤라클레스’ 장미란(고양시청)의 최대 라이벌로 꼽혔던 중국의 무쌍쌍이 출전을 포기하면서 한국은 여자 역도 최중량급(+75kg) 금메달을 사실상 예약한 상태. 그러나 여자양궁과 중국이 전 종목 석권

을 노리는 탁구와 배드민턴에선 한-중 대결이 불가피하다. 한국 양궁은 남녀 개인전과 단체전 등 네 종목에 걸린 금메달 4개 모두 사냥할 계획이다. 반면 중국은 아테네 대회 때 1점 차로 금메달을 한국에 내줬던 여자단체전에서 실책을 노리고 있다. 국제양궁연맹(FITA) 랭킹은 중국이 3위(포인트 261점)로 부동의 1위인 한국(350점)에 한참 뒤져 있지만 베이징 시내 양궁장은 양쪽 관중석 사이 거리가 14m에 불과해 중국 홈팬들의 소음에 가까운 응원 소리가 한국 선수들에게 불리하다. 중국은 앞선 다섯 차례 올림픽에서 탁구 금메달 20개 중 16개를 휩쓸었다. 남자 최강자 왕하오와 세계 2위 마린, 4위 왕리진, 여자부 간판인 ‘탁구여왕’ 장이닝, 2위 귀웨이, 4위 왕난이 총출동해 남녀 개인전과 단체전 등 탁구 전 종목 석권을 버리고 있다. 아테네올림픽 남자단식 결승에서 왕하오를 4-2로 꺾고 우승했던 유승민이 중국 선수

들에게 열세를 보였지만 역경을 딛고 2연패를 이룬다면 금메달 1개 이상의 가치가 있다. 중국은 배드민턴에서도 남녀 단식과 복식, 혼합복식 등 5개 종목 싸움을 자신하고 있다. 이와 달리 한국은 김동문, 하태권, 이동수, 유용성, 라경민이 아테네 대회를 끝으로 은퇴하면서 전력이 약화됐지만 남자 간판 이현일(김천시청)과 남자복식의 정재성-이용대(이상 삼성전기) 조가 중국의 여성에 도전한다. 한국이 배드민턴에서 금메달을 건지려면 중국에 치명타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밖에 양태영(포스코건설)이 중국 간판 양웨이와 맞붙는 남자 체조와 박태환(단국대)이 중국의 기대주 장린의 도전을 받는 수영 남자 자유형 400m도 한-중 메달 경쟁이 불가피하다. 또 펜싱 남자 플뢰레, 여자 사브르, 태권도 남자 80kg급 등에서도 메달을 건 한국과 중국 간 위나루 다리 대결을 예고하고 있다.



올림픽 소식

## 개막식 8일 밤 8시(한국시간) 정각으로 변경

○~베이징 올림픽 개회식이 당초 알려진 8일 밤 8시18분8초가 아닌 밤 8시(한국시간 밤 9시·이하 현지시간) 정각에 공식 시작되는 것으로 확정. 베이징올림픽조직위원회 개회식 담당 장허핑 부장은 6일 메인프레스센터(MPC)에서 가진 개회식 설명 기자회견에서 개회식이 8일 밤 8시에 공식 시작된다고 발표했다. 장 부장은 “8일 밤 5시45분부터 1시간 15분간 중국의 특색이 담긴 28개의 식전 공연들이 진행되며 오후 7시부터 관중들에 대한 안내를 실시한 뒤 오후 7시56분 카운트다운에 착수, 8시에 개회식을 공식적으로 시작한다”면서 “개회식은 밤 11시30분까지 계속된다”고 설명했다. 장미란 오늘 베이징 입성 ○~2008 베이징올림픽에서 유력한 금메달 후보인 ‘여자 헤라클레스’ 장미란(25·고

양시청)이 7일 베이징에 입성할 예정. 역도 대표팀 관계자는 6일 “장미란이 7일 오후 김도희 여자 역도 대표팀 코치와 함께 베이징에 도착할 예정”이라고 소개. 최대 라이벌 무상상(24·중국)이 불참하면서 유력한 금메달 후보로 꼽히는 장미란은 입국 당일 베이징항공대학 트레이닝 센터에서 현지 적응 훈련을 시작할 계획. 체조 양태영 “2세를 위하여” ○~4년 전 아테네올림픽 개인종합에서 오심 과문으로 금메달을 빼앗긴 한을 품고 체조에서 금메달에 도전하는 남자 대표팀의 맹형 양태영(28·포스코건설)이 곧 태어날 2세를 위해 혼신의 땀방울. 양태영은 지난 1일 한국선수단 본진으로 베이징에 도착해 하루도 쉬지 않고 서우두 체육학원과 국가실내체육관을 오가며 컨디션을 조율했으며 6일 밤 8시부터 국가실